

火災指數

현 상의 변동을 알기 쉽게 비교하기 위하여 지수(指數, Index)를 사용한다. 지수란 -이를테면- 기준이 되는 A를 100이라 했을 때 비교하고자 하는 B를 $B/A \times 100$ 의 형태로 나타내는 수단을 말하며, 단위가 없는 무명수이다.

세상 일이 복잡해지는데 따라 표현되는 지수도 수없이 많지만 화재지수라는 용어는 아직 보편화 되어있지 않은 것 같다. 화재 분야에는 표현되어야 할 사항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수 하나하나 -예를 들면 출화지수- 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. 다만, 석유화학 공장의 위험성 평가시 일반공정위험과 특수공정위험 및 물질계수를 각각 곱하여 산출하는 **화재폭발지수**가 이 분야에 이용되고 있는 정도이다.

지수를 산출해 내기 위한 기초 자료는 통계이다. 화재 통계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는 ① 출화 건수 ② 사망자 수 ③ 손해액 ④ 출화원인 등이 있다. 다음의 표는 1992년도 한국과 일본의 화재 통계를 응용하여 지수화한 비교의 한 예이다.


구 분	인구 만명당 출화 건수	인구 만명당 사망자 수	화재 1건당 손해액	전체 화재 손해액
한 국	100	100	100	100
일 본	110	130	593	1,868

사실적으로 나타나는 출화 건수와 사망자 수는 한국과 일본 양국이 큰 차이가 없으나 평가 절차상 주관성이 높은 손해액에서는 그 차가 크다. 일반적으로 화재에 의한 손해액을 과장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면 우리나라의 그것은 과소 평가되었다고 밖에는 할 수 없다.

실제, 1992년도 내무부 화재 통계에 의한 재산 피해액은 약 527억원으로 집계 되었으나 같은 해 화재보험 발생 손해액은 868억원으로서, 그 의미상 전자를 전체, 후자를 부분으로 볼 때 최소한 같거나 커야 할 전체가 부분의 61% 밖에 되지 않는 기현상을 나타내고 있다. 어느 한쪽이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면 이는 바로 잡아져야 할 것이다.

지수로 표현되는 여러 일 들이 세상사의 옳고 그름을 가리자는 뜻 만은 아니라 교육, 안내, 과시, 예측, 오락성... 등으로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. 지수의 종류는 -예컨대- 물가지수, 주가지수, 지능지수, 불쾌지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것 들이 있고, 삶의질지수, 패배감각지수, 고통지수, 유쾌지수, 꽃지수, 충치유발지수, 문화지수 등도 각각의 분야에서 인용되고 있다.

한편, 우리의 신체와 관련한 지수로서 신체중량지수가 있다. 자신의 몸무게(kg)를 키(m)의 제곱으로 나눈 것을 말하며, 그 수치가 20.1에서 25 이내일 때 균형잡힌 몸으로 보고 있다.

코지수는 코의 높이에 대한 폭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서, 흑인들의 코 폭은 별나게 넓어 110 이상이고, 북 유럽 사람들의 코는 별나게 높아 60 이하라고 한다. 코지수가 80일 때 얼굴 전체의 균형과 생리적 측면에서 이상적이라고 하는데, 흑인 가수 마이클 잭슨의 정형수술은 코를 높인 것이 아니라 흑인 특유의 넓은 코를 좁힌 것이었다고 한다. 우리나라에서 코 수술을 하면 높이는 것이 보통이지만 백인 들은 반대로 낮추는 것이 상식이다. 코지수 하나에서도 생각해 하는 일이 많은, 재미있는 세상이다.  <金東一 / 위험관리정보센터 과장>